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김민자 · 유현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The Plasticity and Image of Socks and Stockings

Min-Ja Kim · Hyun-Jung Ryu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7. 23 투고)

ABSTRACT

Socks and stockings played a role as the first clothing covering feet and legs in ancient times. During the Middle Age they have represented clothing for legs and have been transformed into plasticity and aesthetic outlets for human beings' aesthetic desire. Recently in around 1980 various experiments have been tried on them as part of total fashion changing as fashion trends changes. In 1990s the industry of socks and stocking in Korea has grown up as niche market, increasing the export amount twice as much as before.

Therefore, this paper reveals the plasticity through historical study of socks and stocking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lasticity by image classification of socks and stockings in 1990s on the basis of historical studies, which will b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high value added products.

The major plasticity features of socks and stockings are material, technic, formativeness, ornament, color in a word. In 1990s the images of socks and stockings are classified into romantic, sporty, ethnic, ecology, avant-garde image. In 20th century knit and nylon became common and the part of the total fashion, completing the whole fashion.

key word : socks, stockings, plasticity, total fashion, niche market, image

양말, 스타킹, 조형성, 토탈패션, 니치마켓, 이미지

* 본 연구는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비로 진행되었음.

I. 머리말

인간에게 가장 밀착되는 복식 중 하체의 발과 다리부분을 감싸는 양말과 스타킹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마찰완화의 의미로 착용되었고, 추운 지역에서는 하체의 보온을 위해 필수품목으로 착용되었다. 그 역사는 BC2000년~BC1000년 사이의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어 인류의 의복과 함께 그의 조형성도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다. 양말과 스타킹은 고대에 근접할수록 발과 다리를 감싸는 기능성을 강조하였으나 중세 이후 하체를 대표하는 품목으로 심미적, 조형적인 품목이 되어 인간의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며, 현대에서는 1980년 전후부터 실험적인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더 이상 악세사리임을 거부하고 토탈패션의 의미에서 옷의 일부로 등장하여 패션 경향에 발맞춰 함께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패션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다수가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위주의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¹⁾이므로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 고찰을 통한 조형적 특징들과 1990년대 이미지별 조형적 특징들을 살펴 디자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1990년 이전은 문헌 연구이며 그 이후는 사례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의 자료로는 도록, 신문, 최근패션과 양말과 스타킹 디자인 트렌드 북, 인터뷰 자료등을 1차 자료로 선정했으며,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고찰을 위해 복식사에 관한 문헌연구, 학위논문, 의상과 미술의 관련서적, 백과사전 및 복식사전등을 2차 자료로 선정하여 조형적 특징을 알아보며, 사례연구로써 1990년대 양말과 스타킹의 트렌드를 이미지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적 연구의 범위는 서양 복식사에서는 이집트 시대부터 20세기까지이며,

우리나라는 양말이 처음 유입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이다. 1990년대는 각종 패션 컬렉션의 트렌드 북에 나타난 양말과 스타킹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양말과 스타킹 정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서양복식에서 양말과 삭스(Socks)는 발을 감싸며 그 길이가 장딴지나 발목사이의 길이에 해당하며, 스타킹(Stocking)과 호즈(Hose)는 서양복식에서 발을 감싸면서 그 길이가 무릎 주변이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레그웨어(leg wear)로 제한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발 부분이 없이 다리부분 위주로 피복되어 있는 레그웨어가 많이 눈에 띄이므로 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II. 양말과 스타킹에 대한 사적 고찰

1. 양말과 스타킹의 정의와 어원

양말(洋襪)은 신발을 신을 때 발에 신는, 실로 짠 서양버선의 총칭으로 발끝에서 다리까지 휩싸는 액세서리다. 길이는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보다 짧은 양말은 삭스로 불리우며 대퇴부까지 오는 긴 양말은 스타킹으로 구분되며 양말에 스타킹이 포함되거나 스타킹에 양말이 포함되기도 하며, 때로는 호즈가 스타킹을 대신하기도 한다. 양말과 스타킹은 한 쪽씩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허리부분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타이츠(Tights)라고 구분한다.²⁾ 영어권에서는 발과 다리에 착용할 수 있도록 짜서 만든 피복을 호저리(Hosiery)라고 총칭하기도 한다.³⁾

삭스란 용어는 고대 로마인의 발 싸게 형태인 삭쿠(soccus, socque)에서 그 어원을 두며,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 때 서양의 버선을 뜻하는 말(襪)에서 양말(洋襪)로 불리게 되었다. 스타킹이란 용어는 15C 말 2피스의 호즈가 길어져 안쪽 허벅지 끝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바지역할을 하다가 16세기 상하로 분리되면서, 아래쪽의 다리 부분을 'stocking of hose'라고 불리워져 오늘날 스타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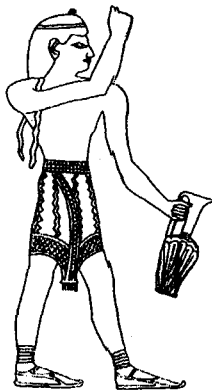
'타이츠'는 1960년대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 가

터 벨트 없이 입을 수 있는 '팬티스타킹', '팬티호즈 (pantyhose)'의 이름으로 등장하여, 현재는 그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 사용되고 있다.

2. 서양에서의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 흐름

1) 고대

고대 유물들에서 양말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따뜻한 기후의 크리트 문명의 유물 중 BC 1550년~1500년 미노아 문명 후기시대 단지에 보이는 양말<그림1>과 BC 1600 ~1100년경 그리스 유물 중 '용사의 항아리', BC 5세기 경의 그리스 시대의 테세우스 신이 사냥하는 항아리의 그림에서 양말 착용의 모습으로 기원전 1000여년 전부터 착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



<그림 1> BC 16C 크레타의 운반인

이집트의 무덤(Bahnsa)에서 AD 4세기 전후의 것으로 이집트 곱트인들이 손으로 직접 짠 싹스 형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양말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⁵⁾ 메소포타미아의 페르시아인들은 추운지방의 기후로 BC 1800년경부터 바지를 착용했고, BC 6세기에 경 이들의 북속국들이 바친 공물의 벽화와 독일 토르스베르크(Thorsberg) 늪에서 출토된 좁은 바지자락의 끝에 양말이 접합되어 있는 것으로 양말은 바지와 함께 하체 보온에 필수품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그러므로 양말과 스타킹의 기원은 더운 지역에서는 마찰방지를 위해, 추운지역에

서는 보온을 위하여 신었음을 알 수 있다. AD 2~4세기경에는 로마인들에게 바지가 입혀지기 시작해 유럽의 여러 민족에게 전해져 각 부족마다의 독특한 바지의 폭과 길이에 따른 다양한 레그웨어가 있었고, 이것이 중세의 호즈로 변화되어 남성 하의의 대표적인 품목이 되었다.

2) 중세

중세 초기 서유럽에는 여러 민족 로마족(Romans), 브리튼족(Britons), 프랑크족 (Franks), 고울족(Gauls), 색슨족(Saxons)들이 교류하면서 다양한 스타킹의 디테일이 나타났으며, 밴딩과 가터로 인해 바지는 충분히 여유 있는 폭을 유지할 수 있었다. 10세기 양말은 길어진 바지속으로 감추어졌으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던 11세기부터 바지가 무릎까지 짧아지자 당시 병사들이 착용한 다리싸개를 쇼오즈(프랑스어 chausses), 호즈(영어 hose)로 불리게 되었고, 길이가 짧은 것은 싹스(socks)로 불리게 되었다.⁷⁾ 바지는 더욱 타이트해지고 짧아진 반면 호즈는 더욱 길어졌다.⁸⁾ <그림2>



<그림 2> 십자군 전쟁시 호즈와 싹스를 함께 신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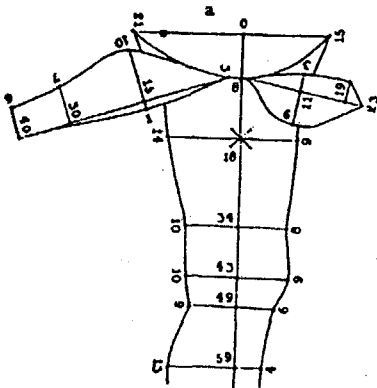
중세 말기에는 튜닉이 멧쟁이들에 의해 딱 붙는 코다르디(cotehardie)로 교체되자 하체를 날렵하게 보이도록 제작자와 착용자가 주의를 기울였다. 브레는 점점 짧아져 속옷으로 바뀌었고 쇼오즈는 점점 길어져 힉까지 올라가게 되어 바지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이 때 양쪽 다리의 색깔을 달리하는

파티 칼라(parti-color, 마이-파티 mi-parti)가 유행하여 르네상스시대까지 계속 되었고, 14세기 말 재단사들의 선호로 스칼렛 호즈는 상류층에 선풍적으로 유행되었다.⁹⁾

15세기 후반 호즈가 마침내 점점 다리 끝까지 위로 올라가자 앞중심과 뒷중심이 개방된 채 호즈가 맞붙어 타이츠 형태로 한 피스가 되었다.

3) 근 세

유럽의 16세기 초반 호즈는 15세기말에 착용하던 앞, 뒤 중심선이 벌어진 형태를 착용하다 중반기 즈음 호즈의 모습은 앞은 코드피스(codpiece), 뒤는 삼각천(gore)을 대어 앞, 뒤 중심이 연결된 상태<그림3>가 되었지만 하체의 큰 움직임으로 인해 엉덩이 부분에 여유분이 많았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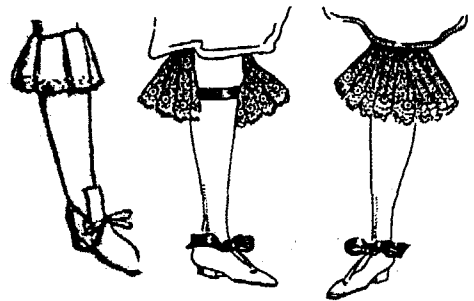
<그림 3> 16C 중반의 호즈의 패턴

상의에 레그어브머튼 소매와 슬래시가 유행하자 호즈에도 유사한 실루엣과 장식이 도입되어 넓적다리의 윗부분을 더 볼륨있게 하거나 상의와 같은 장식 패턴을 사용하여 슬래시와 퍼프가 장식되어 있기도 했다. 슬래시 된 부분은 종종 너무 헐거워져 쉐컨드 호즈(second hose)를 덧 신고 포인트로 더블릿(doublet) 연결하여 착용하다 결국 호즈를 상하로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었다.¹¹⁾

16세기 후반인 1589년 윌리엄 리(英)에 의한 기계 니팅은 아래 호즈에 해당하는 로우어 호즈의 제작기술이 되어 현재까지 거의 모든 양말과 스타킹

은 니팅에 의해 제작되어지게 되었다.

17세기는 부츠의 대중화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스타킹 또한 부츠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다. 실크 스타킹의 착용은 상류층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비싼 실크 호즈를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실크 호즈의 부분이 많이 감추어지도록 긴 부츠 위로 무릎 밑 주변에 아름다운 천이나 레이스로 장식을 하기도 했으며, 부츠와 실크 호즈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자 레이스로 마무리 된 "부츠 호즈(boot hose), 쉐컨드 호즈(second hose)"<그림4>라는 린넨 호즈를 덧 신었다. 루이 14세(1643~1755) 시대에 짧은 구두가 유행하자 주름장식과 리프는 카농<그림4>이라는 명칭으로 무릎 밑을 장식했다.¹²⁾¹³⁾



<그림 4> 17C 부츠호즈와 카농

18세기 초반 롤업(roll-ups)이라는 긴 양말은 무릎 위 길이였던 흰색의 양가죽 켈로트 바지단 위로 올려 신고 가는 밴드로 고정했다. 1730년경부터 켈로트 단이 무릎 밑까지 내려오자 좁은 밴드와 버클, 단추로 꼭 맞게 채워졌으며, 18세기 후반부에는 켈로트 단이 양말의 끝 부분을 덮어내려 양말대님을 대신했다.¹⁴⁾

짧아진 여성스커트와 다양한 춤은 스커트 내부의 양말을 보이게 함으로써 이 시기의 실크 스타킹은 여성의 패션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자존심 같은 품목이 되었다. 18세기 말에는 흰색의 목면 양말이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기술이 점차 발달하여 1889년에는 자동 기계까지 생산되어 이 시기부터는 오늘날과 같은 양말 자동화공장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¹⁵⁾

4) 19세기

여성의 씨스루 패션의 유행으로 스타킹의 길이는 무릎아래, 소재는 실크, 색상은 살색이 유행했다. 19세기 패션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행한 색은 흰색이었으며, 이 시대부터 스타킹은 여성 속옷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¹⁶⁾

프랑스 혁명시기의 보수파와 혁명파의 정치적 대립은 남성의 복장대립으로 이어졌으나 양말은 밤색이나 흑색 등의 어두운 색으로 보편화되었다. 바지의 2가지 형태가 위사르(hussard)라는 이름의 합쳐진 형태로 등장하면서 그 길이가 발목 가까이 오자 오늘날과 같은 장딴지 길이의 짧은 양말로 바뀌게 되었고, 1830년 이후 양말은 바지 속에 가려져 밖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¹⁷⁾

1830년대 부터는 스포츠의 보급으로 여성들의 스타킹이 본격적으로 가시성을 띄게 되었고, 버슬 스타일이 유행할 즈음 스타킹은 거의 면으로 대체되었으며, 염료기술 또한 발달하여 다양한 색상이 등장하였다.¹⁸⁾

5) 20세기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스타킹은 실크 대신 울,면과 같은 비싸지 않은 소재로 생산되거나 레이온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1930년대 선뎀한 다리가 유행하면서 스타킹을 신지 않기도 했으며, 스커트가 짧아지면서 면 스타킹은 점차 사라지고 실크 스타킹이 다시 선호되었고, 1940년 5월 15일에 대중들에게 시판되기 시작한 나일론 스타킹은¹⁹⁾ 여성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실크 스타킹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각선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중화의 시대에 접어들게 하였다.

1960년 가는 천연 고무사로 짜여진 팬티호즈(tights라는 이름으로)가 등장하여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던 시기에 고정기능의 가터나 서스펜더 없이 착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남성의 양말도 윗 부분에 고무사가 들어가 형태가 유지되었다. 1970년대 스포츠 웨어의 확산으로 스포츠 호즈는 다양한 형태와 각각의 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조형성을 갖추게 되었다. 1980년 전후 스타킹과 양말 디자인은 실험적인 다양한 작업을 하여, 이 때부터 스타킹은 무

엇으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를 지나면서 나일론은 여성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었으며, 이 시기에 등장한 라이크라 스판텍스는 팬티호즈 뿐 아니라 여성들의 속옷에 거의 사용되었다.²⁰⁾

1990년대 패션은 다원화를 이뤄 어느 하나의 경향보다는 여러 이미지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도 다양한 조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악세사리의 의미를 넘어 패션의 완성으로 인식되었으며, 기능성을 높이는 제품들도 출시되었다.

3. 우리나라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 고찰

개화기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소개된 양말은 평등을 강조하는 교리 전파를 니트의 신축성을 빗대어 양말을 신어보라고 권하면서 대중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²¹⁾

일제시대 패션리더인 신여성들의 양말과 구두를 함께 신은 복장과 1920년경 고무신의 확산으로 양말은 급속도로 버선의 자리를 차지했다. 1930년 전후는 양말과 버선이 공존하는 시기로서 양말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되었고, 당시 양말의 소재는 면, 라일, 레이온이었다.²²⁾²³⁾

6.25 후 생활이 점차 안정기에 들에 따라 의류와 기타 장신구들의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당시의 나일론 스타킹은 거의 밀수에 의해 뒷중심에 심(seam)이 있는 형태로 유통되었다. 1954년 나일론 스타킹의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후 1962년에는 심리스(seamless)스타킹을 자체 생산하기에 이르렀다.²⁴⁾

1980년대 미니스커트의 부활과 고탄력 스타킹의 등장으로 각선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양말과 스타킹은 다양한 텍스처의 패턴물과 색상, 기능성 개발이 진행중이며 더 이상 악세사리가 아니라 패션 품목의 하나로써 단순히 피복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아웃웨어와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으로 패션의 경향과 함께 변화되어가고 있다.²⁵⁾²⁶⁾

III. 서양에서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

인류초기의 양말은 식물의 잎, 동물의 털, 가죽 등으로 발과 다리의 보호와 보온을 위해 감싸 신기 시작하였으나 처음부터 일정한 형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리적으로 따뜻한 지역보다는 추운 지역에서 바지 폭과 길이 변화에 따라 노출되는 발과 다리의 피부 문제로 양말과 스타킹의 형태 변화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어 상당한 변화와 분화가 이루어져 왔다.

양말과 스타킹이 차지하는 피부 면적이 증가할수록 기능성보다는 장식적인 요소들이 도입되면서 미적인 감각을 표출하는 조형도구로 표현되어 왔다.

이렇게 양말과 스타킹은 인류가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함께 착용하기 시작한 품목으로 그 변화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양말과 스타킹의 소재, 기술, 형태와 장식, 색채 등의 조형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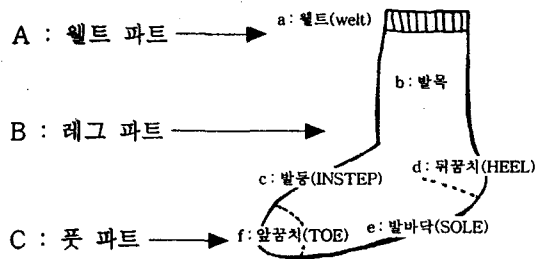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에 미치는 요인들에는 소재, 기술,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사회 문화적인 배경은 인간이 그것을 매개로 자아를 표현하는 기호가 되어 문화적 상징으로 가시화 되기에 동시대 문화의 한 면으로 보아야 하며, 기술적 요인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로서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 더 장기적인 조형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단 새로운 기술이 선 보여진 후에는 쉽게 그 방법이 변하기 않기 때문이며 이것은 소재, 형, 색채, 장식 등 모든 조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²⁷⁾

1. 양말과 스타킹의 각부 명칭

양말과 스타킹은 크게 웰트(welt), 레그(leg), 풋(foot) 파트로 나누어진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웰트 파트는 고무목 부분의 웰트, 레그 파트는 발목 부분, 풋 파트는 발등(Instep), 뒤꿈치(heel), 발바닥(sole), 앞꿈치(toe) 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양말과 스타킹의 각 부분의 세부 명칭과 그림은 <그림5>과 같다.

- a : 웰트(Welt)-목 고무부분 A : 웰트 파트
- b : 발목-발목에 해당하는 부분 B : 레그 파트
- c : 발등(Instep) C : 풋 파트
- d : 뒤꿈치(Heel)
- e : 발바닥(Sole)
- f : 앞꿈치(Toe)-발가락 부분



<그림 5> 양말과 스타킹세부명칭

또한 양말과 스타킹의 길이항목에 따른 양말의 종류는 크게 9가지로 요약되며, 그에 따른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풋만 가리는 형에는 풋 커버(foot cover), 풋릿(footlet)이 있고, 발목부근까지 오는 형에는 슬리퍼 삭스(slipper socks), 앵클릿(anklet), 바비 삭스(bobby socks), 쿼터 삭스(quarter socks)가 있으며, 장딴지 길이의 형에는 크루 삭스(crew socks), 니하이(Knee high), 니 삭스(knee socks), 니커 호즈(knicker hose) 등이 있다. 넓적다리 길이(무릎 위 길이)의 형에는 오버 니 삭스(over knee socks), 다이 하이(Thigh highs), 밴드(band)가 있고, 풋 부분이 없는 형에는 레그 워머(leg warmer)가 있으며, 허리길이의 형에는 팬티 호즈(panty hose), 레오타드(leotard), 바디 스타킹(body stocking)이 있다. 허리 위 까지의 길이의 형에는 바디 슈트(body suit)가 있고, 성형되어 있지 않은 형에는 튜브 호즈(tube hose), 루즈 삭스(loose socks)가 있으며, 기타에는 샌달풋 호즈(sandalfoot hose), 힐리스 호즈(heelless hose) 등의 종류가 있다.

2. 소재

인류 초기에 발과 다리를 피부하는 소재로는 식

물의 잎, 동물의 털, 가죽 등의 자연재료 그대로를 감거나 신발에 넣어 신던 것에서 중세의 십자군 전쟁 시기까지는 대부분 모직이 일반적인 소재였고 그 외 린넨, 가죽(특히 새끼양의 가죽)등이 함께 사용되었다. 전쟁기간 동안 많은 외래 문화와 교류하게되면서 중세 후반에는 다양한 직물의 유입으로 실크, 벨벳, 면 등이 사용되었고, 14C후반에는 스칼렛이라는 질 좋은 모직으로 우븐의 신축성이 향상되자 상류층에서 애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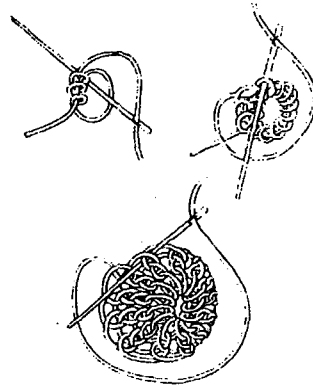
그러나 15C 실크 니트 호즈의 등장 이후 나일론 스타킹이 대중화되기까지 실크 스타킹은 최상품으로서 3세기 이상 자리를 지켜왔으며 17C 니트기계의 발달과 영국의 실용화 경향으로 면직 양말과 스타킹은 일반인들에게 보급되어 사치품이 아닌 일반복식 품목으로 인식되었다. 20C 인조, 합성 섬유 발달과 나일론의 등장으로 더욱 저렴한 가격에 실크와 같은 각선미를 표현할 수 있는 스타킹이 개발되어 일대 혁명을 가져왔으며, 20세기 후반 스판덱스 소재등으로 각선미를 최대화하려는 소재 개발의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3. 기술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제작 방법과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고대에는 자연적인 소재 그대로를 사용하다가 중세이후 우븐과 니트라는 제조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니트법이 우선하지만 복식에 사용된 것은 우븐이 앞선다. 이집트 시대 곱트인들은 동물의 뼈나 선인장 가시를 이용한 크로스 루프 니팅(cross-loop knitting)²⁸⁾ <그림6>을 개발하여 양말을 제작하였다. 이 방법은 현재의 니트 방법과는 다르지만 니트의 시작이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있어왔다는 점과 주로 양말 제작에 사용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으로 복식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말과 스타킹의 니트 제작 방법은 고대 4~5C에 잠시 등장했다가 약 1000년정도의 기간동안 우븐에게 자리를 내어주어 신축성이나 착용감, 타이트하지 못한 외관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서 각선미를 최대화하려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16C

전후 수편 실크 스타킹이 제작되어 값비싼 품목으로 통용되다 16C후반 곧 기계니트로 이어지면서 니트 양말은 대중화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림 6> 크로스 루프 니팅법

기계니트는 양말 품목에서 비약적이고 급진적인 발달을 이루어 섬세하면서도 하체를 최대한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보이고자하는 욕구에 다가서게 하였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제작 방법이 되었다. 니트기계는 복식사 뿐 아니라 현재 사용되는 모든 기계의 시원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기계분야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형과 장식

장식은 다른 조형성의 항목보다 형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변화하고 있으므로 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형은 무릎아래부터 발목길이 까지가 기본길이가 되어 상하로의 연장이 길이 항목을 결정하였다. 고대시대에는 신발 안에 신겨져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인들에게 반혀진 공물 부조<그림7>와 트로베스크 늪에서 출토된 바지에서 양말이 바지에 접합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추운지역에서는 바지의 역할과 양말의 역할을 함께 생각했다는 증거가 되며 발목 부분에서 꺾이는 재단상의 문제점을 안고서도 레오타드형으로 제작한 것은 당시 발의 보온이 상당히 필수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7> BC 6C 페르시아인들에게 밝혀진 공물 부조

AD 4C 전후 이집트 곱트인들의 양말형<그림8>은 일본의 전통양말이나 병어리 장갑처럼 발가락 부분이 2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 바지가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각각의 부족마다 독특한 바지형을 착용했고, 바지 밑에 입었던 품목은 각반형과 덧버선형이 주류를 이뤄 전자는 호즈로 후자는 삭스로 발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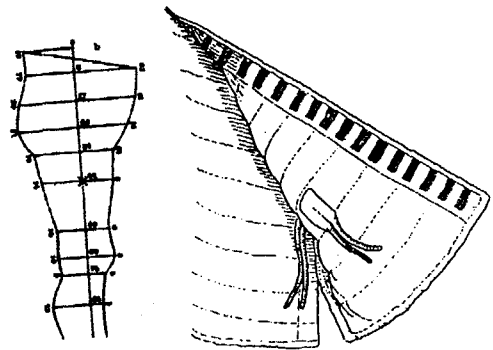
<그림 8> AD 4C 이집트 곱트인의 양말

중세에 들어 각반형은 넓은 천으로 감싸거나 봉대 같은 넓은 띠로 칭칭 감아 올라갔으며, 10C 전후 길어진 바지와 함께 신은 덧버선형은 십자군 전쟁 시 활동에 민첩함을 위해 각반형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이와 같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호즈와 삭스의 형태와 명칭이 분명해졌으며 호즈와 삭스를

함께 신기도 했다.

13~16C까지 상류층의 호즈는 발 부분(foot)이 함께 접합된 형이나 때로는 발바닥 부분에 보강재를 대어 호즈와 신발이 합쳐진 '페들(pedule)'을 신기도 했고 하류층의 호즈는 노동시 당김이 없도록 발 부분이 없는 것이 다수였다.

중세 후반에는 상의가 짧아짐에 따라 하체 즉, 다리의 각선미가 더욱 눈에 띄자 다리선 그대로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입체 재단하듯 재단하여 다리 형태에 근접하는²⁹⁾ 소재와 패턴 연구<그림9>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길어진 호즈는 16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타이트해졌으며, 2피스가 1조를 이루던 것이 한 피스의 타이츠형이 되면서 포인트³⁰⁾<그림9>로 더블릿의 허리에 고정되어 바지를



<그림 9> 15C말의 호즈패턴과 포인트

대신하는 과도기를 겪게 되었다.

호즈는 상의의 장식과 실루엣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여 상의의 레그어브머튼 소매와 슬래시가 유행하자 넓적다리 부분에서 위와 아래가 연결된 채 윗 부분을 더 볼륨있게 하거나 슬래시로 장식<그림 10>하였으며, 결국 과도한 슬래시는 넓적다리 부분에서 상하를 2등분하는 원인이 되었다. 윗 부분의 호즈는 점차 부피가 커지고, 아래의 호즈는 더욱 타이트하게 구분되어 위는 바지로, 아래는 스타킹으로 구분되어 오늘날까지 분화되어 왔다.

16C 후반에 수편과 기계편의 방법이 등장한 후 남녀 모두의 스타킹이 무릎아래의 길이로 정착하였고, 17C초기에는 긴 부츠의 유행으로 부츠 상부가

격이면서 그 부분에 아름다운 천이나 레이스로 과대 장식하거나 부츠호즈를 덧 신었으며 중반 이후 부츠가 짧아지자 카논으로 무릎밀을 장식했다.<그림4>



<그림 10> 16C초 슬래시된 호즈

18C 호즈는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무릎길이의 스타킹이 퀴로트 밑단을 올려 덮는 형태에서 (roll-up 밑단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변해갔다.³¹⁾ 프랑스 혁명 말기 바지는 발목길이의 위사르로 변화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짧은 양말로 바뀌게 되어 1830년 후부터 남성의 양말은 장딴지에서 씨스팬더로 고정되면서 바지 속에 가려져 밖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시기부터 색상은 검정색과 어두운 색으로, 길이는 장딴지 길이로 정착되었으며 이러한 모드는 100여 년 이상 지속되었



<그림 11> 롤업

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남성의 복장이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18세기 후반부터 스타킹 패션을 주도하는 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었다. 20C 여성의 스타킹은 점점 길어져 무릎 위로 올라가게 되어 끝부분을 가터나 씨스팬더로 고정시켰고 그 길이는 계속 길어져 넙적다리 중간의 길이가 되었다. 1940년 처음 나일론스타킹이 출시되었을 때는 뒷다리에 봉제선이 있는 형태였으므로 전쟁으로 공급이 줄어들자 뒷다리에 눈썹 연필로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심을 그리고 다니기도 했다.<그림12>³²⁾



<그림 12> 스타킹을 신은 듯 심을 그리는 모습

1960년대 미니스커트의 유행으로 팬티스타킹이 등장하게 되고, 스펀텍스의 발명으로 착용감을 향상시켜 가터, 씨스팬더 등의 고정을 위한 악세사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1970년대는 스포츠 붐으로 각각의 스포츠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 양말이 등장했으며, 80년대 전후 길이의 다양한 변화와 텍스처, 패턴, 자카드, 메탈릭, 장식호즈 등이 다량 선보여졌다. 80년대 후반 바디컨셔스 스타일이 유행하면서를 각선미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어 레그웨어는 더 이상 악세사리가 아닌 옷의 한 품목으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어 90년대는 이의 연장으로 다양한 길이와 소재, 형태, 장식, 패턴이 공존하는 조형성을 낳았다.³³⁾

5. 색채

디자인의 요소 중 가장 먼저 가시성을 갖는 색채는 19C 전후 염색술이 급격히 발달하기까지는 천연 재료로 색을 내어 색에 의한 아름다움 뿐 아니라 이것으로 계급의 구분과 계층, 직업까지 알 수 있는 상징을 갖고 있었다.

이집트의 곱트인들은 텍스타일의 저장물로 색채에 대한 조예 또한 깊어 AD 4C에도 붉은색, 갈색, 보라색으로 니트 양말을 제작한 것은 고대인들에게도 색에 대한 미적 욕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³⁴⁾

9C부터는 노동과 상관없는 상류층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주황, 적색, 자주색 등을 선호하였으며, 금색은 왕족과 성직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으로 인정되었다. 반면 하류층은 명도나 채도가 낮은 올리브그린, 회색 등으로 노동후 더러움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색을 사용했다.

14C말 스칼렛은 원래 신축성을 향상시킨 품질 좋은 모직의 소재명이었으나 당시 상류층에서 붉은색이 유행하게 되자 색채명으로 지칭하게 되었다.³⁵⁾ 십자군 전쟁 후 문장의 여파로 줄무늬나 사선무늬, 양쪽의 색이 다른 파티칼라의 스타킹 착용이 성행하였다.

17C에 흰색은 예장용이었고 패셔어블한 부츠와 흰색 스타킹과는 함께 신지 않았으며 18C 남성들은 퀴로트와 함께 흰색바탕에 파란 줄무늬 스타킹을 선호했고, 일상용으로는 회색, 예장용으로는 갈색이나 품위있는 색을 선호했다. 18C 후반 부터 염색술 향상으로 여성 양말은 가운과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³⁶⁾

19C 남성 복식이 오늘날과 같은 형을 지니게 되면서 양말의 길이만 정착된 것이 아니라 갈색, 검정 등의 색까지 정착되었고, 흰색은 정장에 실례가 되는 색상으로 스포츠용으로만 인정되었다.³⁷⁾ 여성의 경우 19C는 전체적으로 흰색이 유행했으며 옷, 신발에 맞춰진 다양한 색과 패턴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³⁸⁾

1926년쯤부터 피부색이 그대로 비춰져 누드의 느낌이 나는 플래시칼라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2차

세계 대전 후 여성의 호저리의 색상은 다양하고 화려해지는 반면 남성의 양말은 19세기 말 이후 한정된 색상으로 정착되었다. 이 경향과 1950년 전후 합성섬유 양말의 유행이 맞물려 양말 생산업자들이 대량생산이라는 명목하에 재고의 부담을 줄이기 더욱 한정된 색상만을 생산하였다.³⁹⁾ 결국 빅토리아 여왕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남성 양말의 색상과 형태의 조형성은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림 13> 크레이지 토우

20세기 후반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색이 달라 보이거나 하나의 스타킹에 여러색으로 프린트나 자카드 무늬가 나타나는 소재, 크레이지 토우<그림13>, 복잡하게 여러색 실들이 혼합된 색의 소재등이 나타나고 있다.⁴⁰⁾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은 소재, 기술, 형과 장식, 색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가시화 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적 과정 중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말과 스타킹이라는 품목이 니트의 계보를 잇게 해준 품목이라는 점과 나일론 스타킹의 생산으로 저렴한 가격에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다리의 아름다움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욕구의 만족과 기회를 준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다음<표 1>은 사적 고찰을 통한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 서양복식에서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

		고 대	중 세	근 세	19세기	20세기
소재		풀, 털, 가죽, 모직	린넨, 가죽, 모직, 실크, 벨벳등	모직, 실크, 면직	견, 라일, 면직, 모직, 실크	면직, 라일, 모직, 실크, 레이온, 실크, 나일론, 씨 포트, 혼방 등 다양
기술		소재 그대로 사용, 우븐, 니트	우븐	니트기계 발명	니트	나일론 스타킹, 스판덱스 등장
형태	길이	· 덧버선형 · 레오타드형 · 레그워머형	· 덧버선형(씩스) · 호즈-스타킹형과 레그워머형	· 타이츠형으로 바지를 대신하다 상,하 분리되어 아래 부분을 스타킹이라 부름.	· 남여 모두 무릎 밑 길이로 다양.	여성 위주 패션 · 1960년대 팬티스타킹 등장 · 1990년대 다양한 길이와 형태
	외관	· 레오타드형 · 병어리 장갑처럼 앞이갈라짐 (최초의 니트유물)	· 초기에는 싹스, 호즈를 함께 신음. · 말기에는 타이츠형이 되면서 더욱 타이트해지고, 길어짐.	· 초기의 타이츠형은 앞은 코드피스, 뒤는 고어플랜. · 18세기 전반은 풀업. 후반은 바지단으로 양말이 들어감	· 남성양말은 바지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음	· 나일론 스타킹 뒤에 seam이 있고, 60년대 seam이 없는 것 등장 · 스판덱스로 인해 가터, 서스팬더 사라짐
색채		붉은색, 갈색, 보라	· 상류층은 밝은 색 · 하류층은 명도, 채도 낮음 · 14세기엔 스칼렛, 15세기는 파티칼라 유행	· 파티칼라, 사선무늬, 줄무늬등등 · 남성은 여성보다 어두운 계열 선호 · 18세기남성양말은일상용으로는 회색,예장용으로는 갈색.	· 염색술 향상으로 색상 다양 · 남성 양말은 어두운색으로 정착 · 19C 여성 양말은 흰색이 지배적	· 1926년쯤 플래시칼라 유행 ·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색상과 가시성 높은 색의 스타킹 · 스포츠용으로는 흰색 선호
장식		아름다운 천, 가죽, 끈	밴딩, 가터, 스켈럽, 금은사, 진주, 보석, 테슬, 코드, 포인트, 브레이드, 클락	파티칼라, 슬래시, 포인트, 가터, 밴딩, 버클, 자수, 리본, 깃털, 레이스, 보석, 카농, 부츠호즈, 금은사, 패드, 스칼랩.	· 서스팬더, 가터, 매듭, 리본, 레이스	· 서스팬더, 가터, 스페셜밴드, 진주, 세퀸, 자수, 리본, · 과감한 프린트, 자카드 등의 텍스처어 중요시
기타		· 따뜻한 지역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추운 지역에서는 보온을 위해 착용.	· 하체의 대표품목이 되면서 각 선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임. · 발목부분에 덧단을 접합할 때 클락 유행.	· 슬래시로 세컨드 호즈를 착용하다 상하 분리가 유행 · 가터는 간소, 부풀린 바지는 화려. · 16세기 수편 실크 양말은 고가(高價)로 상류층만 이용	· 18세기 후반부터 스타킹 패션을 주도하는 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고, 색과 소재 위주로 유행됨,	· 1970년대부터 스타킹은 섹스어필한 품목으로 인식되고, 각각의 스포츠에 맞는 풋웨어가 등장 · 80년대에는 스타킹을 패션의 일부로 인식, 90년대부터 패션트렌드에 맞춰 등장

IV. 1990년대 양말과 스타킹의 이미지

1990년 이후부터 양말과 스타킹은 패션의 경향과 함께 변화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5가지 조형적 특징 또한 패션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패션 컬렉션을 통한 패션 트렌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표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점차 기능주의적인 스타일과 융합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90년대 초반에는 표현주의적인 측면에서 시공간의 개념이 적용된 패션이 다수였으며, 중반에도 표현주의적인 측면에서 성적 매력의 개념이 적용된 디자인이 주요 트렌드였으나 점차 표현, 기능주의가 결합된 아방가르드를 거치면서 기능주의적인 퓨리처즘, 미니멀리즘이 부각된 디자인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했다. 이 아방가르드는 90년대 초반에는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동양적인 비정형인 디자인으로의 흐름이 보였으나 후반기에는 특정스타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타일의 영역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기능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의 다양한 생활양식에 맞추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테마들이 동시에 나타나며 하나의 테마에서도 디자이너의 특질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어, 후기자본주의 사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중 다원화된 가치들의 공존과 탈대량화, 그리고 개인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의 다원화 이면에는 전반적으로 민족주의적이거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이는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거나 다른 것들과의 융합(fusion)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특유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다양한 시도들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1990년대 패션 트렌드는 표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다문화주의로서의 에스닉룩과 에콜로지룩 오리엔탈룩이 있고, 기능주의적 측면에서는 계급으로서의 성의 개념과 권

력의 개념이 반영된 네오클래시즘과 미니멀리즘으로, 이는 클래식룩, 엘레강스룩 그리고 미니멀룩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⁴¹⁾

그러므로 1990년대 패션의 다원주의는 장르와 장르의 상호 영역을 넘나드는, 혹은 어느 하나의 스타일이나 룩이 아닌 복합적인 양상을 띠면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90년대 양말과 스타킹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악세사리임을 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미지가 혼재되어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양말과 스타킹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1990년대 양말과 스타킹을 복고풍, 스포티, 에콜로지, 에스닉, 아방가르드의 5가지 이미지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이미지에 따른 조형성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1. 복고풍(romantic image)

복고풍 패션은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복식, 19세기 낭만주의의 복식에 대한 향수로 20세기 말 역사와 전통에 대한 회상, 자연으로의 회귀로 다시 등장하였다.

8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으로 인한 장식의 극단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바로크와 로코코시대의 장식요소를 차용하고 있다.⁴²⁾ 80년대를 이어 90년대 복고풍은 다양한 패션 트렌드와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며 나타났다.

양말과 스타킹의 복고풍이미지는 거의 무릎위로



<그림 14-1> 복고풍 이미지



<그림 14-2> 복고풍 이미지

올라간 길이로 형태의 변화는 적지만 텍스처에 있어 조직, 자수, 색에 의한 패턴이 다분히 나타나고 있어 장식이 많고, 화려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소재는 섬세한 자카드, 레이스나 우븐과 니트, 니트와 레이스등의 2개 이상의 소재가 합쳐진 것등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전체가 레이스로 짜여진 것, 가터부분에 과도한 장식이 되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 발목 부분을 중심으로 자수가 사용된 것등이 있다.

색채는 검정과 흰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파스텔톤 보다는 원색계열이 부각되어 전체적으로 화려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2. 스포티(sporty image)

1970년대 이후 스포츠의 붐으로 스포츠 룩은 패션의 캐주얼 부분과 함께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보편적인 트렌드로 정착되었다.⁴³⁾

양말과 스타킹에서의 스포츠 룩은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 무릎 주변의 길이로 비교적 짧게 디자인되어 활동감을 주고 있으며, 발부분(foot)이 없는 레그워머(leg warmer)도 스포츠 웨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품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기존의 스타일과는 다르게 여성의 하이힐과 면양말을 함께 신은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나일론 소재보다는 면 위주의 소재를

사용하여 다소 투박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활동적인 느낌으로 장식은 거의 없으며 색상은 흰색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1> 스포티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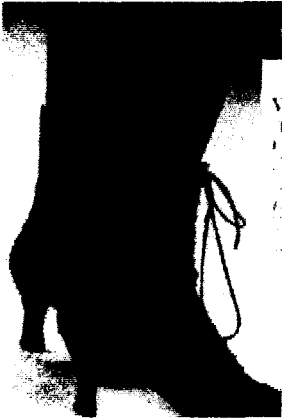


<그림 15-2> 스포티 이미지

3. 에콜로지(ecology image)

에콜로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과학적 합리주의, 물질문명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1960년대 반과학사조부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강화됨에 따라 복식분야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기대하며 상품자체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인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물질적 가치로 전

환되었다. 특히 복식분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 에콜로지가 하나의 유행 경향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여 다원화된 시대적 사고가 반영된 에콜로지 이미지가 제시되었다. 자연지향적 측면에서 자연과 자연에 대한 향수로 오염되지 않은 비서구문명을 동경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자 하는 의식이 표현되고 있다. 복식에서의 에콜로지 경향은 디자인, 기술, 마케팅의 3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며⁴⁴⁾, 이 중 양말과 스타킹의 에콜로지 경향은 디자인 측면으로서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프린트가 주류를 이루며, 컷아웃(cut out), 전체 조직등에 변화를 줌으로써 표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모티브는 자연주의, 원시주의 등의 자연친화적인 경향이 나타



<그림 16-1> 에콜로지 이미지



<그림 16-2> 에콜로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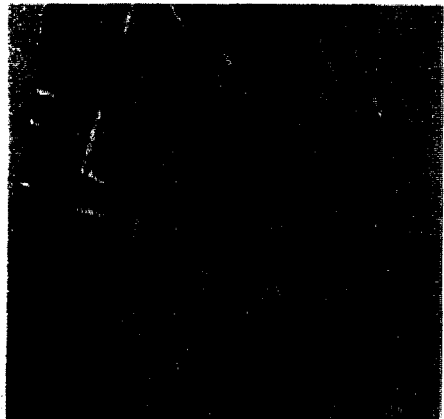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주로 자연의 기본적인 요소로써 식물과 동물의 무늬가 드러나고 있는데 표범의 무늬를 프린트한 동물무늬나 꽃 무늬로써 옷과 같은 패턴을 스타킹과 구두까지 같은 패턴으로 이어져 전체의 조화를 이루려는 의도로 토탈 패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체 패턴을 동식물 위주의 이미지로써 에콜로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4. 에스닉(ethnic image)

에스닉 룩은 기계와 단순화 등 발전을 거듭하던 현대 문명에 대한 회의와 반성,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무시했던 20세기 초반의 시대사조인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립, 절충, 그리고 인간성 회복에 중심을 둔 시대사조의 반영으로, 서구문화의 지배로 인해 무시되어 왔던 민속복과 원시주의 양식이 부각된 것이다.⁴⁵⁾

특히 다문화주의의 경향으로 디자이너 고유의 오리지널리티나 국가와 민족의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퓨전(fusion)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다양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⁴⁶⁾

양말과 스타킹의 에스닉한 이미지는 프린트, 자카드, 프린팅등으로 텍스타일 위주의 변화가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또한 아프리카 풍이나 트로피칼 룩등의 특정지역이나 특정 민족을 연상시키는 색채



<그림 17-1> 에스닉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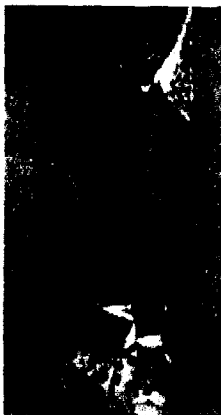
<그림 17-2> 에스닉 이미지

가 눈에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아방가르드(avant-garde image)

아방가르드는 전대의 가치체계와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새로운 미적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하며 새로운 표현방식의 시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극단적이고 실험적인 현대예술이다.⁴⁷⁾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인체형과는 무관한 형태를 이루며 장식적 디자인 역시 미적 특성을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의미없이 사용되기도 한다.⁴⁸⁾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소재, 형태, 장식의 3가지 면이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소재에 있어서는 비닐, 가죽, 털등이 이용되거나 형태적인 면에서는



<그림 18-1> 아방가르드 이미지



<그림 18-2> 아방가르드 이미지

발가락 부분이 잘려져 나간 형태와 밴딩과 패치, 컷아웃(cut out)를 이용하여 다리 전체를 피복하고 있으며, 패션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같은 패턴을 더욱 과장되게 스타킹에 프린트 한 것과 여러 소재를 한꺼번에 조합한 것, 구멍 뚫린 스타킹을 하나의 패션으로 등장시킨 해체주의적인 것도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 고찰을 통해 조형적 특징들을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양말과 스타킹의 이미지를 분류하고 각각의 조형성을 살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의 디자인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양말과 스타킹의 사적고찰을 통한 조형성과 1990년대 이미지와 그의 조형적 특징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말과 스타킹은 인류초기에 생리적인 기능위주에서 중세 이후 착용상 여러 문제점이 수반되더라도 조형적인 면에 비중을 두어 인간의 미적 욕구와 복식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인류초기부터 2피스였던 양말과 스타킹은 16세기에는 길어져 한 피스가 되어 바지 역할까지 하는 하체의 대표 품목이 되었고, 16세기 중반이후 넘적다리에서 상하로 분리되고 니트법의 부활과 니트기계의 발명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을 갖추게 되

었으며, 20세기에 들어 나일론 스타킹의 출시는 일반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각선미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셋째,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의 주요 특징은 소재, 기술, 형, 장식, 색채로 요약된다. 소재는 동식물의 자연그대로의 상태 소재에서 모직으로 약 1500년간 지속되다 16세기부터 실크와 면이 등장하였고, 20세기에는 레이온, 나일론, 스판덱스까지의 변화가 있었다. 기술은 우븐, 니트, 우븐으로 변하면서 약 1000여년간 지속되다 16세기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시 니트에게 자리를 내주었으며, 형은 길이항목에서 발목, 무릎주위, 넓적다리, 허리까지로 구분되며 이의 변형인 레오타드, 부츠호즈, 팬티호즈, 레그워머 등과 기계에 의한 심의 유무나 입체형도 있다. 장식은 가터, 문장, 밴딩, 카봉, 슬래쉬, 자수(클락), 보석, 리본, 컷 아웃, 패치, 셔스펜더, 프린트, 자카드, 기계에 의한 텍스타일 등이 있으며, 색은 20세기 전 상류층은 명도, 채도가 모두 높았으나, 하류층은 어두운 색 위주였으며, 20세기 이후에는 남성은 검정, 회색, 청색으로 한정되며, 여성은 살색을 기본으로 다양한 재료와 함께 수 많은 색이 등장했다.

넷째, 1990년대 양말과 스타킹의 이미지는 복고풍, 스포티, 에콜로지, 에스닉, 아방가르드로 분류되었고, 각각의 조형적 특징에 있어서 복고풍은 자카드나 레이스직과 흰색위주의 화려한 장식이 있으며, 스포티는 흰색위주의 밝은색이 주를 이루며, 주로 면을 이용해 활동적인 느낌을 추구하고 있다. 에콜로지와 에스닉은 색채, 프린트, 자카드의 텍스타일의 변화로 그 특징이 나타나며, 아방가르드는 형과 재료, 장식의 다양함으로 요약된다.

이상과 같이 사적 고찰을 통한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은 중세부터 미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표현되어 온 품목으로 하체의 디자인 강조점을 의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장식적이면서, 조형적인 면에 치중하여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재와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16세기의 니팅과 20세기에 이르러 나일론 섬유 등장으로 양말과 스타킹은 대중적인 품목이 되었다. 1990년대 패션의 다원화와 토탈패션의 강조로 더 이상 악세

사리로서 부수적인 품목이 아닌 옷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자리하며 전체패션을 완성시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후속연구로는 양말과 스타킹의 기원이 고대로 갈수록 그 형태, 기능, 재료가 신발, 바지와 유사하여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으로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와 국제 무대에서 정체성을 지닌 한국적인 이미지의 양말과 스타킹 디자인을 위한 연구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한국의류산업연합회, 1999년도 섬유제품수출입현황, 한국의류산업연합회, 2000년, p37, 43
한국의류산업연합회, 2000년도 섬유제품수출입현황, 한국의류산업연합회, 2001년, p38~39
한국의류산업연합회, 1999년도 도시가게 연보, 한국의류산업연합회, 2000년,
90년대 초 중반부터 2000년도의 수출입 통계서에 따르면 수출수량은 양말은 3억 6천만(DZ)에서 5억만(DZ)을 상회하게 되었고, 스타킹은 2백만(DZ) 이하에서 3백만(DZ)으로 늘어났으나, 금액은 양말은 3억만불 전후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스타킹은 5천 5백만불에서 3천만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시가게연보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양말(2천억원 내외)과 스타킹(900억원에서 960억원)으로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다.
- 2) 학원대백과사전, 학원출판사, 1993년, 20권, p 418.
- 3) 패션큰사전 편찬 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년, p353
- 4)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이종남 외, 복식의 역사, 서울 : 까치, 1988년, p80,85, 92.
- 5) 샌들을 제외한 신발은 재료, 형태, 제작방법에서 양말의 발생기원과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하여, 형태, 재료의 구분에 있어 명확히 양말과 신발의 구분을 단정짓기 어렵다. 그러나 BC 5세기 경부터 그리스인들의 신발이 이전과 다른 확실한 구두창이 있는 것으로부터 그 구분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 6) Blanche Payne, Ibid, p 66, p 160
- 7) Lester, Morris Katherine and Derke, Viola Bess, Accessories of Dress, Illinois, Bennett, 1940, p287~288,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년, p 447
- 8) Lester, Morris Katherine and Derke, Viola Bess, Ibid, pp288~289
- 9) 정홍숙, op.cit, pp153~154

- 10) 신영진 Ibid, p42.
- 11) Blanche Payne, op.cit, pp 309~310
- 12) 김희정, op.cit, p58.
- 13) 김희정, Ibid, pp58~61.
- 14) 정홍숙, op.cit, pp261~264.
- 15) Lester, Morris Katherine and Derke, Viola Bess, op.cit, pp296~297
- 16) 김희정, op.cit, pp67~70.
- 17) 김희정, op.cit, p70.
- 18) 김희정, op.cit., p71.
- 19) 박영수, **유행속에 숨어있는 역사의 비밀**, (주) 살림출판사, 1998년, pp302~303.
- 20) Karen W. Bressler, Karoline Newman, Gillian Proctor, **A Century Of Lingerie**, Chartwell Book, INC, New Jersey, 1997년, pp97~98
- 21) 박영수 op.cit, 143p.
- 22) 김지완, op.cit, p27//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이대출판부, 1980년, pp 640~641.
- 23) 김민자, 임원자, 이은영, 구미지, 김윤희, **한국 복식발전과 사회발전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93년 17권 2호 , p318.
- 24) 김지완, op.cit, p28 // 남영나일론, 심인화 이사와의 면담, 1987년 3월 27일.
- 25) 신영나일론 상품기획팀 (김승미 외)과의 인터뷰, 2001년 5월 23일.
- 26) 가나스포츠 양말 담당 디자인팀 실장과의 인터뷰, 2000년 6월 20일.
- 27) 박신희, **1990년대 해외컬렉션과 국내컬렉션의 패션 트렌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년, p58.
- 28) Jennifer Harris, **Textiles 5,000years**, London : British Museum Press, 1933.
크로스 루프 니팅(cross-loop knitting)은 동물의 뼈나 선인장 가시로 오늘날의 봉제 바늘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는 바늘로써 뜨개질이라기 보다는 봉제형식으로 한 루프 다음에 또 하나의 루프가 이전의 루프를 꼬아 막아서 차례로 루프를 만드는 방법으로 일반 뜨개질보다는 더 치밀하고 매끄러우며 튼튼하고 세로방향의 줄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기법을 텍스타일 학자에 따라 네일 바인딩(nail binding), 한 바늘 뜨개질(single needle knitting)이라고 지칭된다. 아직도 스칸디 나비아 반도에서 여성들의 가내 수 작업으로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 29) Lester, Morris Katherine and Derke, Viola Bess, op.cit., p290
- 30) 뿌르뿌엥과 호즈를 연결시킬 때 이용된 끈으로 끝에 쇠장식이 붙어있다. 앞, 뒤, 옆 에 위치하여 한 켤레의 호즈에는 적어도 6개의 포인트가 있었다.
- 31) 신영진 op.cit, p60.
- 32) CHARLOTTE SEELING,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KONEMANN**, 1999년, p229
- 33) Karen W. Bressler, Karoline Newman, Gillian Proctor, **A Century Of Lingerie**, Chartwell Book, INC, New Jersey, 1997년, pp97~98
- 34) 이해옥, **니트웨어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년, pp 28~29 // Tweeddale, Kelly H. **Patterns of History, Vogue Knitting**, Fall 1999.
- 35) 스칼렛(Scharlach, Scarlet) : 질 좋은 울(wool)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사들이나 부유한 시민에게 큰 인기였고, 신축성이 훌륭하여 다른 어떤 소재보다 호즈용으로 적합했다. 이것의 일반적인 색은 red, brown으로 많이 신겨져, 이 소재의 이름이 색상의 명칭으로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Carl Kohler. op.cit., p181.
- 36) 김희정, Ibid, pp73~74.
- 37) (주)서광 홍보실, **신사복이야기, 금비문화**, 1993년, 부록 p18.
- 38) Lester, Morris Katherine and Derke, Viola Bess, op.cit., pp297~298.
- 39) (주)서광 홍보실, **알고 입는 옷, 모르고 입는 옷, 금비문화**, 1995년, p82.
- 40) Karen W. Bressler, Karoline Newman, Gillian Proctor, Ibid, pp97~98.
- 41) 박신희, op.cit, pp 113~115.
- 42) 채선미, 유영선, **현대패션에 나타난 로맨티시즘 경향** 복식 45호, 1999년 P61
- 43) 박신희,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0, P101.
- 44) 한소원, 김영인, **1990년대 초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1999년 23권 2호, pp297~305.
- 45) 박신희, op.cit, p105.
- 46) 박신희, op.cit., pp114~115.
- 47) 노정심,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4년 pp 19~29
- 48) 박신희, op.cit., p 101.